

한 그루의 나무가
씨앗과 열매와 그늘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숲’이 됩니다.
‘나눔’이 됩니다.

가정·일터·지역사회의 환경이

숲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여망이 모여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 때마다 위협받는 것이 환경·안전·보건입니다.

환경·안전·보건은 시민들의 감수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가와 사회의 도덕성, 공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숲’의 미덕과 ‘나눔’의 힘을 믿습니다.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 담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14년, SK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꾸려 조사 및 보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증 결과 작업장 환경과 발병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포괄적 지원보상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재직자뿐만 아니라 질병에 따라 협력업체 재직자와 퇴직자,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상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을 포함해 **누락 가능성을 없애고 지원 대상자를 최대한 보상**안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를 발족해 검증위의 제안을 적극 이행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직업병의 선제적 대응을 비롯 세계 수준의 산업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보건선진화지속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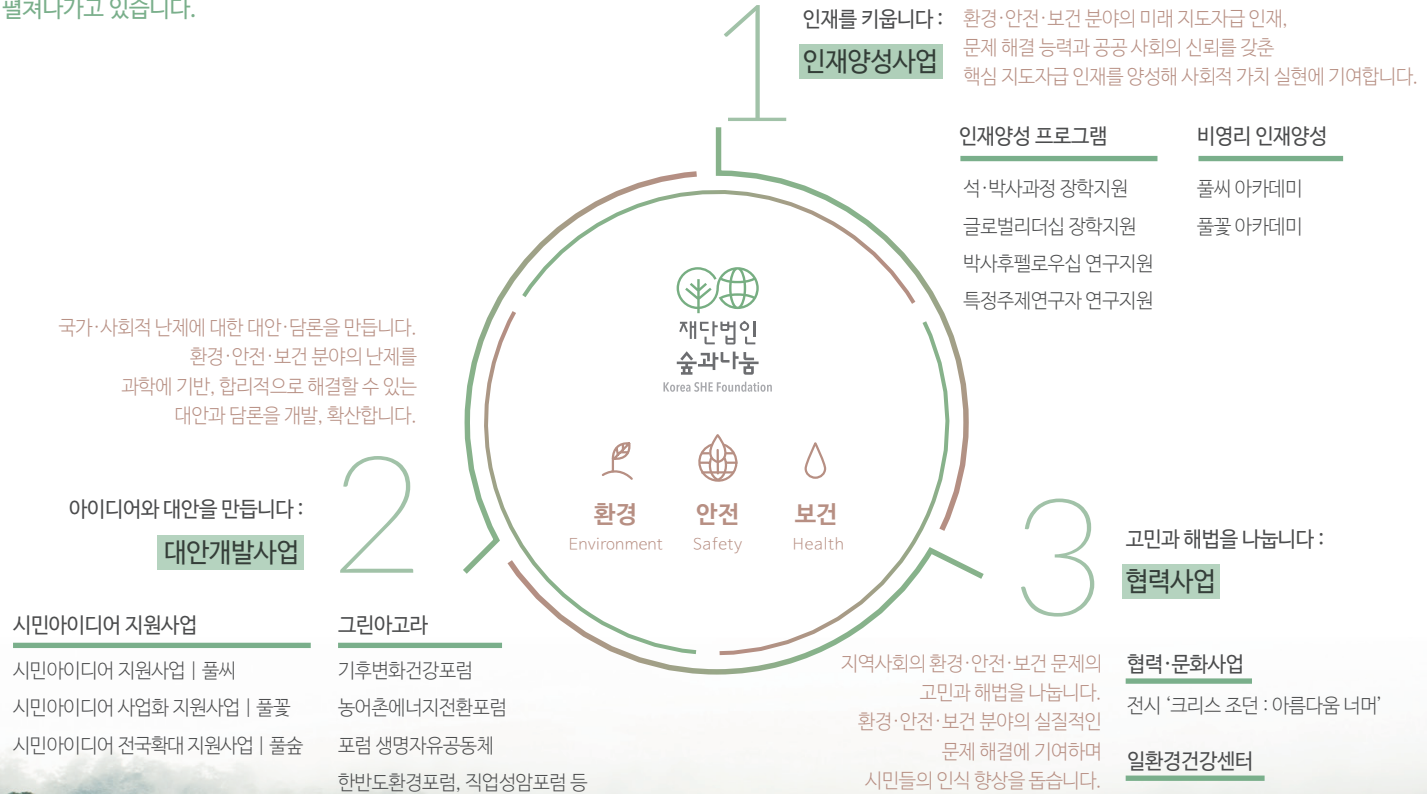
이후 환경·안전·보건(SHE : Safety, Health, Environment)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SK하이닉스는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장재연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각 분야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갖춘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7월,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설립되었습니다.



Photos © 함께나눔 이영수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우리 사회를 숲과 같이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사업, 대안개발사업, 협력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프로그램 문제 해결 능력과 공공 사회의 신뢰를 갖춘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입니다.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여 키웁니다.

석·박사과정 |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 및 과정생
 글로벌리더십 | 개발도상국 국적자로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 유학예정자 및 유학생
 박사후펠로우십 |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만자
 특정주제연구자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자,
 학사 이상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지원합니다. 개인과 소규모 단체를 토대로 새로운 시민 운동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풀씨 |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난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풀꽃 | 스타트업 규모로 성장할 아이디어 사업화, 캠페인화 지원
 풀숲 | 전국 단위의 사업, 비즈니스로 확대

그린 아고라 고대 그리스의 시민토론장인 아고라(Agora)에 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이 합쳐진 단어인 '그린 아고라'는 국내외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집결지' 역할을 한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 대안과 담론의 장(場)입니다. 각종 포럼과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기후변화건강포럼 | 농어촌에너지전환포럼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한반도환경포럼 | 직업성암포럼 등



문화사업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시회 등 문화행사, 캠페인, 특강 등 시민 대상의 교육·문화·홍보 사업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너머〉
Chris Jordan : Intolerable Beauty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사진전

서울(성곡미술관, 2019년 2월~5월)
부산(F1963 석천홀, 2019년 5월~6월)
순천(순천문화예술회관, 2019년 8월~9월)
제주(제주현대미술관, 2019년 10월) 등 전국 순회 전시로 운영



일환경건강센터 숲과나눔은 (주)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산업 협력업체의 환경·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청주에 ‘일환경건강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일환경건강센터는 소규모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서비스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직업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민간 최초 공익산업보건센터입니다.



일 환경 건강 센터

Center for Working Environment Health

주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청주테크노스타워 동관 212호
전화번호 043-904-7411 운영시간 09:00 ~ 20:00 (월~금)

이용비용 무료 (SK하이닉스 협력사 및 소규모 영세업체 노동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

이용방법 센터 내방 및 사업장 방문 서비스 제공

그들과 내음과 씨앗과 열매를 다른 나무, 다른 사람, 너른 세상과 나누면 '숲'이 됩니다. '나눔'이 됩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각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와 이사회가 투명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합니다.



공공성
Publicness



전문성
Expertise



투명성
Transparency



독립성
Independency



재단법인 숲과나눔

Korea Safety Health Environment Foundation

이사장 **강재연** |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사 **구도완** |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김호철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박영숙 |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 대표

이종석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前 통일부 장관

감사 **박상철** | 회계사, 박상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시는 길

06737,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양재동 11-2)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하차 | 5번 출구에서 매봉역 방면으로 50m 직진(도보 1분)

